현불 논단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드문드문한 사찰 불자들의 모습
코로나19 유행으로 변한 일상들

정쟁이 되어버린 코로나19 상황
사회적 취약계층 관심 줄어들어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부처님, 공동체 쇠퇴 않으려면
"빈부귀천 없고, 서로 소통하라"

부처님오신날이 막 지났다. 다양한 연등이 사찰을 밝혔지만, 사찰을 드나드는 불자가 드문드문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힘들게 느껴지던 코로나19도 이제 당연한 일상처럼 여기는 듯도 하다.

1년 하고도 6개월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은 역시 변화에 쉽게 익숙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달라진 일상을 잘도 버티고 있으니.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없었던 백신이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백신의 등장에도 여전히 언론보도는 코로나 관련 뉴스로 북적인다. 그만큼 지켜야 할 일상을 빈 틈새 엿보듯이 코로나가 상존하는 치명적인 위협인 것은 여전해 보인다.

그런데 1년 그리고 6개월을 더 지나다 보니, 코로나19 관련 뉴스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기사들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궁지로 내몰렸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뉴스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익숙해져서 망각해버려도 좋은, 더 이상은 뉴스의 소재조차 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도 지쳐버린 것일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 재난 혹은 사회적 재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던 사회적 안전망이 한쪽으로 쏠리고 좁아지면서, 안전망 바깥으로 쉽게 내버려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일 수는 있다.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모르쇠로 일관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무관심이 그리고 방심이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 즈음의 마지막 유행(遊行)을 떠나시기 전에, 마가다의 아자타삿투 왕이 밧지족을 침략하여 멸망시키고자 부처님의 조언을 요청한 일화는 유명하다. 부처님은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훈'으로 답변하셨다. 답변 내용은 간단하다. 밧지족이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서로 돌보고 있고, 잘 소통하고 있다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위의 소통이 활발하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잘 돌보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러한가?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뉴스는 코로나19도, 극복 방안인 백신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쟁 속에서 정작 경각에 놓여 있는 사회의 취약계층들은 기대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못하는 타성화된 일상이 반복된다. 우리는 무너져버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메꾸고 고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에 최소한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소통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는 출발점은 우리의 주변에 대한 관심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은 생명 하나하나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존중을 요청한다. 비록 우리가 부처님만큼의 관심을 우리 주변에 기울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관심을 주변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요청하신 최소한의 안전망에 다름 아닐 것이다.

社說

언택트 연등회 또 다른 기회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5월 15일 불교계는 사상 최초로 언택트 방식으로 연등회를 진행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진행된 언택트 연등회는 단체들의 참여열기를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어수선하게 진행됐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연등회 후에도 계속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검색 트래픽이 사상 최고치의 56%에 달할 정도로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유튜브 영상 조회 수도 1만 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행사 뒤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번 언택트 연등회는 각 지역 사찰과 단체들의 연희단들이 사전 율동 영상을 보내고 이를 편집하여 상영하는 부분과 줌을 활용해 불자들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더해졌다.

율동영상은 코로나로 인한 집회 금지 속에서도 율동에 참여한 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을 연결한 소통 방식은 앞으로 연등회가 또 다른 국민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유튜브를 통해 대기설법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

언택트 연등회를 통해 불교계는 전국 사찰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대형 행사와 법회마다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팔관회와 함께 국가적인 불교행사로 이어져 왔으며, 다양성과 포용성 등을 인정받아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 다양성과 포용성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언택트 연등회를 계기로 불법 홍포 또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길 기원한다.

한국불교 포교, 체질 개선 시급

어느 순간부터일까. 종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탈종교사회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위무할 수 있지만, 내부 동력이 무너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갤럽은 5월 18, 20일 2차례 걸쳐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30년에 걸쳐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에는 불교 신행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이 나타나 충격이다.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교인 중 1%만이 하루 1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불경을 읽지 않는다'는 불교인은 66%에 달했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는 5%에 불과했다. '수행의 종교'라고 자부하는 불교의 신도라고 보기 힘든 수치다. 사찰 방문 빈도가 타종교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것은, 불교 법회나 의례가 주간이 아닌 초하루, 정월 등으로 이뤄져서이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력신앙을 가진 불교의 신도들이 경전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회해야 할 일이다.

과거의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이나 입춘, 백중에 사찰에 가서 축원지를 올리는 '정서적 불자'들이 대다수였다. 재를 통한 구복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화되고 조직화된 신도들이 필요하다. 종단들도 이 같은 핵심 신도들이 많아져야 가속화되는 탈종교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포교와 교육 분야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개선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은 보물로 가득찬 창고

한 겨울 얼어붙은 대지 위에 오직 소나무만 푸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앙상한 초목들이 봄기운을 맞으니 오색 색깔로 자신의 본성을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대자연의 신비한 생명법칙 앞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아파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의 병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해 생긴 병이었어요. 위로 대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소(牛)는 이미 떠나갔고 쥐고 있는 고삐는 세월에 삭아버렸어요. 다 썩은 고삐를 움켜쥐고 무얼 하겠다고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려 합니까? 무겁고 어두운 집착에서 하루 속히 해방되어 건강을 되찾아요."

과거에 대해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 모래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 물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위에 새긴 글씨는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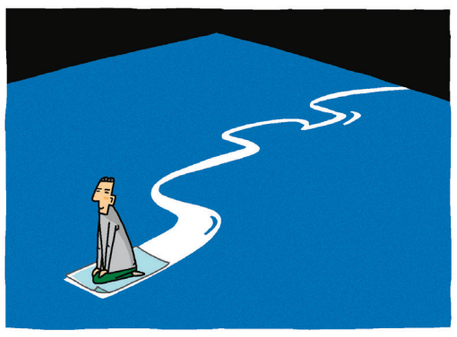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런 부류의 사람은 성냄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모래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란 자주 화를 내지만 그 성냄이 모래에 쓴 글씨같이 오래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래에 쓴 글씨는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고 없으니, 외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에 쓴 글씨는 이내 흘러 자취도 없습니다. 물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란 욕설이나 언짢은 말을 들어도 그 마음에 자취를 남기지 않고 온화하며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마음은 보물로 가득찬 창고와 같습니다.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창고를 믿지 않고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물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 창고를 믿고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창고가 어두우면 보석이 빛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불유쾌한 생각에 사로 잡혀 있거나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으로 불타고 있다면 보배로 가득한 마음창고에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물인 집착을 버리는 순간부터 마음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늘이 없는 밝은 마음을 가진다면 자기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